

# “트럼프, 대선일 밤 조기 승리 선언 계획”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

“경합주·신격전지 승리 전제돼야”

펜실베이니아 개표 결과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3 대선일 밤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개표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밀한 발언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이 시나리오를 은밀히 얘기해 왔다”며 이 시나리오는 선거일 밤에 연단으로 걸어 나와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경합주인 ‘선벨트’의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3개 주는 물론 신 접전지로 떠오른 오하이오, 텍사스, 아이오와, 조지아에서 모두 이기거나 상당한 격차로 앞설 필요가 있다고 측근들은 예상했다. 실제로 이들 주에서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경합 3개 주 중 경쟁이 치열한 펜실베이니아 한 곳만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넘길 수 있다.

또 이 시나리오가 실행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 초반 앞서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이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탓에 우편투표가 급증했는데, 펜실베이니아는 주 규정상 투표 종료시점까지 우편투표를 개봉할 수 없다.

따라서 대선 당일 현장투표가 먼저 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앞서다가 우편 투표 개표 속도가 붙으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

일 개연성이 높다. 대선 당일 현장투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우편투표는 바이든 후보 지지층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예상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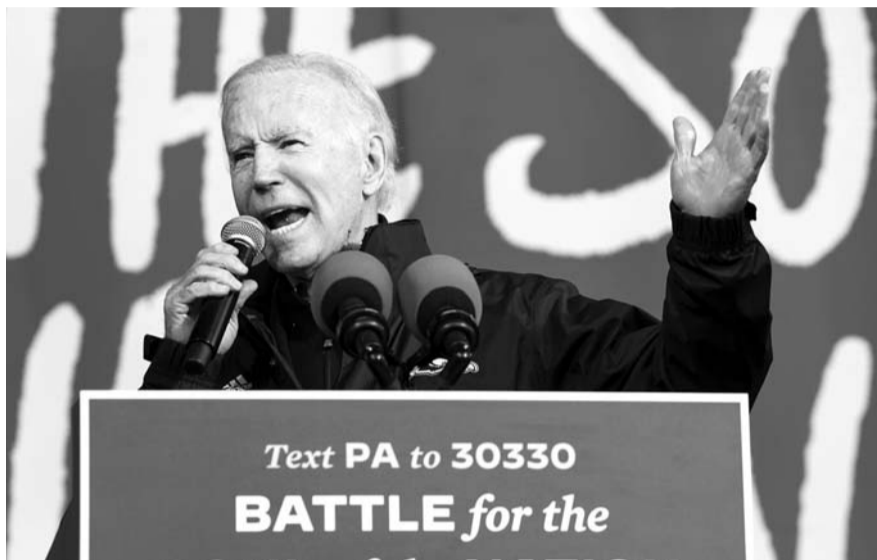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한 이후 펜실베이니아의 최종 개표 결과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뒤집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많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리를 선언한 것과 별개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점해 실제 당선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개표 완료까지 수일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한 상태에서 최종 개표 결과는 나오지 않는 혼돈 상황이 며칠간 지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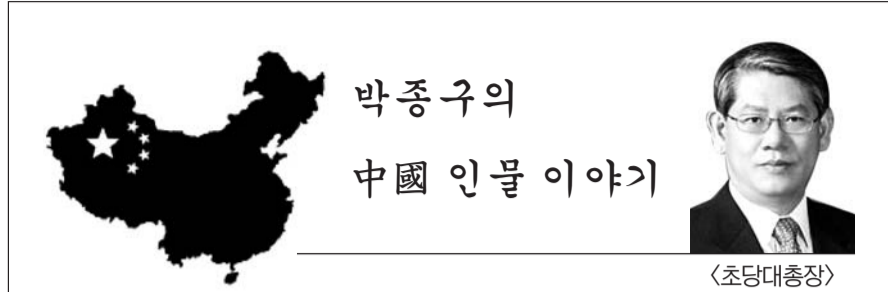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팀은 선거일 이후 계산된 우편투표가 선거 사기의 증거라고 허위로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더뷰크 지역 공향에 마련된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5〉 오고타이

오고타이(1185~1241)는 몽고 제국의 제2대 황제다. 부친 징기스칸의 뒤를 이어 몽고 제국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대외 정벌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징기스칸의 3남으로 너그러운 인품으로 장남 주치와 차남 차가타이를 제치고 후계자로 발탁되었다. 일찍부터 부친의 대외정벌에 참여했다. 서아시아 원정 때에는 호라즘 왕국의 수도 우르겐치성을 함락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오고타이한국(汗國)을 세워 그 시조가 되었다. 옛날 나이만 부족이 다스리던 땅으로 준가리아로 불리는 지역이었다. 1214년 징기스칸이 금나라의 연경을 공격할 때 아올초재(耶律楚材)라는 일대의 영재를 얻었다. 아올초재는 징기스칸이 하늘이 몽고에게 준 선물이

큰 잔이어서 과음은 여전했다. 중신들이 술에 취해 그 앞에서 실수해도 용서해 주는 너그로움이 있었다.

아올초재, 전진해 등을 기용해 중앙 정부의 통치기구를 정비했다. 점령한 땅에다투라기치(達魯花赤)를 파견해 속령의 통치를 원활히 하였다. 오노강변에 수도 카라쿠름성을 건설해 속령을 통치하는 중앙집권 방식을 강화했다. 금나라가 다스리던 하북 지방에는 한인세후(漢人世侯)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국의 제도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몽고 입장에서 이들의 협력에 불가피했다. 그러나 협력의 대가로 징세권이나 관리임명권을 요구해 갈등이 많았다. 오고타이는 아올초재의 건의에 따라 십로과세소(十路課稅所)를 설치해 한인세후의 징세권을 넘겨받았다. 오고타이는 몽고 왕족과 귀족에게

## 통치체제 확립한 몽고 제국 2대 황제

라고 칭찬할 정도로 뛰어난 경륜을 갖춘 인물이었다. 아올초재 없는 오고타이의 치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징기스칸 사후 2년 대쿠릴타이에서 카간으로 추대되었다. 오고타이는 신원사(新元史)에서 “관대하고 너그러워 군주의 도량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온화한 인물이었다. 주치와 차가타이는 서로 배다른 형제인 까닭에 매우 사이가 나빴다. 둘 중 누구를 후계자로 정해도 징기스칸 사후 가문의 분열을 피할 수 없었다. 카간으로 추대되는데 막내인 툴루이가 가문의 반대가 있었으나

망을 나눠주는 봉건 통치 방식을 희망했다. 아올초재는 이렇게 하면 왕족과 귀족의 분열이 촉진되어 중앙의 통치가 어려워진다고 건의해 이를 백지화했다.

중신 아올초재가 중재에 나서 오고타이의 집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고타이의 묘호는 태종(太宗)이다. 오고타이의 치세 중에 징기스칸의 오랜 꿈인 금나라 멸망이 이루어졌다. 1234년 개봉을 포위해 항복을 받아냈다. 1234년 정월 금나라의 애중은 개봉을 떠나 체주로 도주했는데 결국 자살했다. 건국으로부터 120년 만에 멸망했다. 원래 몽고군은 개봉을 철저히 파괴하고 주민을 모두 죽일 계획이었다. 도성(屠城)이라 불리는 대탄압인데 아올초재의 반대로 대량학살과 파괴를 면할 수 있었다.

1241년 재위 13년만에 오고타이가 사망했다. 중국과 달리 정자 승계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후계 싸움이 불가피했다. 막내동생 툴루이의 장남 몽케, 본인의 장남 구유크, 셋째 아들 구츠의 아들 시라문의 삼파전이었다. 그러나 구유크는 징기스칸 집안의 장손인 바투와 사이가 나빴다. 제2차 서방 원정 때 총사령관인 바투와 구유크가 사사건건 충돌했다. 오고타이 사후 부인 투라카나가 4년 간 섭정을 했다. 1246년 투라카나는 대쿠릴타이를 소집했다. 그녀는 바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 구유크를 제3대 황제로 밀었다.

구유크는 정종(定宗)으로 즉위했다. 정종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주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지나친 과음과 황으로 구유크가 1248년 즉위 3년 만에 급사해 왕족 간 내전을 피할 수 있었다. 동쪽으로 이동한 바투는 쿠릴타이를 열어 툴루이가의 몽케를 카간으로 추대했다. 몽골 제국의 3대 황제 호종(憲宗)으로 불린다. 정종황후는 갈에 던져졌고 몽케와 경합한 시라문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오고타이가 50대에 일찍 생을 마감한 것은 술과 관련이 깊다. 매일 과음으로 건강을 해쳤다. 아올초재의 간언으로 하루 석 잔으로 줄였지만 상당히

오고타이가 50대에 일찍 생을 마감한 것은 술과 관련이 깊다. 매일 과음으로 건강을 해쳤다. 아올초재의 간언으로 하루 석 잔으로 줄였지만 상당히

## 美우선주의 트럼프-동맹 중시 바이든...방위비·주한미군 등 입장차

미대선 결과 한반도 명운에 직결

북핵 접근법 ‘툭다운’ 대 ‘보텀업’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국의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이 강화되고 방위비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선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라는 큰 틀에 입각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선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토대로 비핵화 노력을 다져나갈 전망이다.

◇ 대북 정책 기조 바뀔까=양측의 북한 비핵화 협상 접근법은 크게 다르다. 여기에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의 반

응까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에서 보이든 정상 간 합의를 통한 ‘툭다운’ 방식을 선호한다.

재선될 경우에도 이런 ‘툭다운’ 접근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기자회견에서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성과에 매달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집권 2기의 대북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북 협상에선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보텀업’ 방식의 실무 협상을 중시한다.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동참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언론 기고문에서도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식 툭다운 대신 치밀한 실무 협상을 토대로 접근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 방위비·주한미군 등 한미동맹 현안 접근도 달라=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미 관계에 격랑이 예상된다. 공정한 부담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방위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압박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언론 기고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외교·안보와 통상 정책에서 중국 견제 기조는 누가 당선되든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